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정보화 교류단절

뉴스·단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군소 홈페이지의 수적 증가는 재쳐놓고, 94년 '종단 전산화'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시작되기 6년만에 수 억원이 소요되는 '사이버' 대작본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망령 격인 조계종은 데이콤·이현시스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3월부터 '달마넷(Dharma Net)' 서비스를 시작했고,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전산본 팔만대장경의 1차 교정을 오는 6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교계에서 '사찰·단체의 개인주의' 정보·기술의 독점' 등을 버리지 않는 한, 사이버 항해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데이콤은 당초 10억여원을 달마넷 사업에 투자하기로 협정했으나, 지난 4월 조계종과 정보·기술 공동 개발의 1차 사업결과 때 난색을 표명했다. 달마넷 수익성이 거의 '제로' 상태였다. 협정서에 따르면 수익성이 저조할 경우, '일정기간' 지원금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천리안 담당자는 "달마넷을 홍보할 전담팀이 조계종에 구성되지 않았고, 또 단위 사찰에서는 '홍무원이 벌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전전산화에서도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와의 자존심이 '중복투자'와 '시행착오'를 낳았다. 이 분야에서 핵심기술은 한자폰트 기술 그런데 두 단체의 자존심은 상호교류의 벽으로 작용했고, 결국 전자불전연구소의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는 교계에 한자폰트기술이 있었지만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정보화는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필수 조건이다.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공유할 때 가치를 인정받는다. 교계의 정보화는 정보를 축적하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화에 맞는 '사부대중의 근기' 즉 이해와 교류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종욱 기자(goboo@buddhopia.com)

해인골프장 무효소송 제기

해인총림대책위등 12개단체 대구지법에 소송 행정행위 무효확인 요청...건설백지화 기대

해인골프장 건설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돼 해인골프장 건설백지화의 전망이 다시 밝아졌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 반대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스님)와 주민대책위(위원장 도영환), 환경운동연합(공동 대표 장학) 등 12개단체는 4일 대구지방법원에 건설부장관과 경북도지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피고로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허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訴狀)에서 "건설부장관이 90년 4월17일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건설을 위해 공인계획변경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경상북도(주)가야개발(대표 김신국)에 대해 골프장사업계획을 승인한 것도 원천무효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효 주장의 근거로 허가당시 자연공원법과 동시행령에 △국립공원내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중 골프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공인계획을 변경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95년 법대법위가 골프장사업 승인행위를 백지화할 상대로 승인행

위의 취소를 구했던 것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행정소송은 문제부여 의해 승인취소 재결이 났으나 가야개발이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을 거쳐 97년 12월 대법원이 가야개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사무국장은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를 꾸준히 요청해왔다"면서 더욱이 "지난해 12월 가야개발이 요청한 공인사업시행기간 연장요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해 거부된 것도 소송을 제기하게 된 한 요인"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94년 12월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해인골프장은 가야산국립공원내에 48만평의 부지에 18홀규모로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환경피해와 문화재훼손을 우려하는 해인총림과 환경단체, 인근주민들이 연대해 무효확인소송을 포함 총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등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해인골프장 사태 일지 3면>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봉행된 법회에서 각 종단의 스님들이 서거모니 불을 정근하며 통일발원 탑돌이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강산에 통일기원 목탁소리

불교도 순례단 신계사터서 분단이후 첫 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고산스님(조계종총무원장)과 진각종총무원장 성호대장사 등 각 종단 대표와 승공사 방장 보성스님 등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단' 1진 5백50여명은 3일 오전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불도, 고산스님의 법어, 성호

진각종총무원장의 발원문 낭독, 사홍서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고산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의 법회가 갈라진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관음의 자비가 되고, 문수의 자애가 되어 민족의 통일의 새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호 진각종총무원장은 발원문에서 "남북의 단종상이 더불어 복락을 누리는 바른 길로 인

도해달라"고 기원했다.

이에 앞서 순례단은 2일 현대 금강호 선상에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고산스님의 방북 때 북한에 전달할 식기모니불공물 최상과 오존과발의 정안식도 거행했다. 순례단은 5일 동해항에서 회합했다.<관련기사 3·11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분담금 납부키로

조계종-선학원 합의초안

조계종 법안대책위(위원장 영담)와 선학원 한안대백실무위(위원장 성문)는 11일 조계종 총회사무처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조계종-선학원 관계정립을 위한 공동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합의문 초안을 통해 △선학원 정관에 '조계종 총회·종중 부대' 삽입하고,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보장 △조계종의 권리 제한 해제 및 선학원의 분담금 납부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선학원 임원(이사) 구성에서 법안대책위는 '조계종 승려'를, 선학원 실무위는 '조계종 승려 중 분원장'을 주장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선학원 명칭에 '조계종'을 삽입하는 문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4차 회의는 22일 열린다. 정성운 기자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알남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엮는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봉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잊고 지나가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정: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봉나무집 1박)
- ◇장 소: 용주사 신록사 야외정사 경주시 백령사 에버랜드
-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 ◇참 가 비: 5만2천원
- ◇문 의: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5-21-0567-583 (예금주: 김원우)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총리관·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불교조각인

현대불교 운영 몰 부다피아

사이버 백화점 '인터넷 우수 사이버몰' 선정

불교계 유일의 불교전문 사이버백화점인 본사의 '몰 부다피아' (mail: buddhopia.co.kr)가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에 선정돼 8월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인증서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전자거래포럼원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우수사이버몰시상제도 제1회 대상은 '한솔CS클럽' (www.csclub.com)이 차지했다. '몰 부다피아'는 불교관련 서적에서부터 정보화 소프트웨어·편서용품을 비롯 향 염주 불교공예작품 음반 등 1천여종의 불교관련 용품을 시장보다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무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몰 부다피아'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이체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상품 가격

의 3%를 적립해 주며 3만원 이상이 되면 적립금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불교용품 불교미술 불교서적 식품 전통공예 서화문구 등 각 코너별로 상품전시장을 운영해 상품 설명과 이미지, 소비자가격·할인가격 등을 안내(영문 버전도 제공)해 준다. 이밖에 국내외 '불교사이트 링크'와 '천불전' 코너를 운영해 네티즌들이 사 이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교 속보·법어를 제공하고 불교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불교 갤러리'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가·비허탈의 정성적 매정미인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후원계좌: 800478 국민은행 827-25-0020-443
* 후원계좌: 009-01-202221 씨불은행 189-13-0329-2
* 후원계좌: 009-01-202221 씨불은행 189-13-0329-2
* 후원계좌: 009-01-202221 씨불은행 189-13-0329-2
* 후원계좌: 009-01-202221 씨불은행 189-13-0329-2

gwa (주)건화중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대표 TEL (02)555-1567 ~ 8 (02)555-7181 ~ 4

주식회사 아리중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전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대표 TEL (02)555-5775 · (02)555-2434 ~ 6

ARI 아리건설(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대표 TEL (02)555-1567 ~ 8 (02)555-7181 ~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2-24(아리빌딩2.3층) 대표이사 김기상